

싱가포르 선박금융 독일과 한국의 선박펀드 위협

확보선박 10년동안 조세혜택 부여 등 장점 많아

싱가포르에서 올 2월에 새로 도입한 선박금융이 독일의 전통적인 KG펀드는 물론, 한국의 선박펀드시장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KMI의 '지구촌 해양수산' 최신호에 따르면, 싱가포르 해운항만공사(The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 MPA)는 새로운 해운 금융제도인 해운 금융인센티브(Maritime Finance Incentive : MFI) 정책을 지난 2월 도입했다.

MFI는 선박리스업체, 펀드와 트러스트를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이 제도를 통해 선박을 확보하면, 10년동안 조세혜택(tax benefit package)이 주어져 선주들의 선박금융 조달 선택권이 그 만큼 넓어지게 된다.

싱가포르는 인가받은 선박투자회사(approved ship investment vehicles : ASIV)가 인센티브 제공기간 중에 확보한 선박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선박의 수명기간 동안 조세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만일 ASIV가 선박을 취득해 20년 동안 대선하고, 그 이후 선박을 해체하는 경우 용선료로 벌어들인 대선료에 대해 MFI에서 인정되는 10년 조세혜택 기간이 아니라 선박의 수명기간인 20년 동안 조세가 면제된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5월 싱가포르 퍼시픽인터내셔널라인(Pacific International Lines : PIL)이 처음으로 선박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이와 관련, 독일의 한 KG 운용사는 현행 세계

시스템에 불만을 갖고 있는 노르웨이 선주들이 싱가포르의 제도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다른 유럽의 선주들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선박투자회사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제도 초기에 도입한 세제혜택이 200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져 선박펀드 투자에 대한 매력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선주들 탱커 신조 상담에 적극적

2006년 상반기에 선박의 선체강도를 강화하는 선급공통건조기준(CSR) 적용을 앞두고 대량발주에 들어갔던 그리스 선주들이 최근들어 탱커발주에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그리스 선주들은 최근 CSR 적용으로 예전보다 선가가 높아진 탱커의 신조선 발주를 위해 아시아 조선소들과 신조상담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6년 12월에 적용되는 새로운 밸러스트탱커 도장기준으로 추가로 선가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발주를 서두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주로 일본과 한국에 발주하던 그리스선사인 Dynacom Tankers Management가 중국 Jiangnan 조선소의 신규부지에 건설중인 Shanghai Changxing Shipbuilding Base에 VLCC 2척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그리스 탱커선사 Kristen Navigation은 한국의 성동조선과 최대 6척의 아프라막스탱커 건조에 대해 상담중이며, Alpha Tankers는 현대중공업에 수에즈막스 탱커 2+1척을 발주했다. 또한 Chandris(Hellas)는 삼성중공업에 수에즈막스탱커 2척을 발주하는 등 탱커발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